

韓國地方新聞의 特質에 관한 研究

— 讀者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

吳 斗 凡

本研究所 特別研究員 · 淸州大 教授

目 次

| | |
|--------------|--------------|
| I. 序 論 | 2. 調查結果 |
| 1. 問題의 提起 | (1) 應答者 概況 |
| 2. 問題의 背景 | (2) 結果分析 |
| 3. 問題의 敘述 | (3) 問題發見과 代案 |
| II. 本 論 | III. 論 議 |
| 1. 調查目的 및 方法 | IV. 結 論 |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8.15解放後 전국적으로 맨 먼저 새로 創刊된 新聞을 가진 곳이 서울이 아니고 地方이었다.¹⁾ 아무리 서울의 人口가 膨脹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全國人口의 1/4밖에 안되는 人口로서 地方紙는 全國人口의 3/4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여러번의 政變과 統廢合을 거치고도 韓國의 地方紙는 16개 全國日刊紙중 개수로도 10개를 차지하고 있다. 韓國의 地方紙는 그 重要함에 비하여 제도적 配慮와 關心이 약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學術的인 研究도 매우 부진하였다.

現下 韓國 地方新聞이 가지고 있는 特徵的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綜合的으로 관찰하여 學界에 보고하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綜合的 관찰이라고 하여도 어떤 立場과 接近方式의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韓國 地方新聞의 實相을 주로 讀者와의 關係라는 視角(立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讀者와 地域社會新聞의 關係는 바로 經營 및 廣告誘致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오늘날 地方新聞이 처한 環境的 制度的 背景과 연결되는 地方紙의 特徵的 문제점의 원천이 된다고 하여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따라서 本稿의 序論에서는 地方新聞 전반의 문제점, 本論에서는 필자 자신이 行한 讀者調查의 結果를 한 事例로 하여 報告·論議하고자 한다.

序論部分의 綜合的 敘述部分 및 論議部分도 단지 主觀的 印象의 지적만으로 一貫할 수

1) 1977韓國新聞年鑑, 韓國新聞研究所, 1977, p.52.

없으므로,

첫째는, 필자가 地方言論教育의 일익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主觀적으로 관찰한 外形的 評價 둘째는, 地方言論社 幹部들이나 地方有志들을 非公式 인포먼트로 한 私的 對話나 討論의 內容에서 지적된 斷片的 事實들

셋째는, 地方紙의 문제에 대해 現業界에서 各種業界誌를 통해 論議되거나 발표된 論文이나 論說등 記錄된 資料源에서 抽出한 것을 체계화한 것들을 中心으로 記述 또는 論議하였고 그중에서도 세번째의 方法에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두었다.²⁾

本論部分의 讀者調查報告內容도 어떤 假說의 검증이나 問題解決의 연구가 아니라 단지 1회에 걸친 現狀記述의인 서베이調查의 實施結果를 頻度分布 및 比率提示 形式으로 報告하는 것이다. 따라서 現下 韓國 地方紙의 現況과 問題點에 대한 學界의 關心을 환기하기 위한 問題提起의 한 試圖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2. 問題의 背景

(1) 定 義

韓國이나 日本에서의 一般新聞은 ① 日刊綜合紙(全國紙) ② 地方綜合紙(地域紙 또는 블록紙) ③ 地方紙(道紙) ④ 기타 特殊紙로 구분되며 이러한 區分은 取材·報道 구역과 보급·판매 구역에 있어 규제 차별되고 있다.³⁾

즉 ① 全國紙는 전국일원에 걸쳐 커버하고 보급·販賣하게 되며 ② 地域紙는 인접도까지 판매·보급하게 되어 있고 ③ 地方紙는 自道안에서만 판매·보급하게 되어 있다.⁴⁾ 그런데 1978년부터 新聞協會의 이른바 「言論自律淨化에 관한 決定사항」중 地方紙 판매구역 제한 조항을 완화하는 결의를 통해 兩道地域內的 新聞은 어느 신문이든 兩道全域에 걸쳐 보급·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애초에 自道 안에서만 보급·판매할 수 있는 新聞을 地方紙라고 한 定義方式에 의한다면 兩道가 없는 京畿·江原·濟州 3個道紙만 地方紙이고 나머지는 모두 地域紙나 準地域紙가 된 셈이다.⁵⁾

그리하여 現下 全國紙로는 서울에서 發刊되는 6개 綜合日刊紙(京鄉·東亞·서울·朝鮮·中央·韓國)와 2個 英字紙가 여기에 속한다 하겠다. 地域紙로는 釜山日報·慶南新聞·大邱每日·光州日報가, 兩道紙로는 全北新聞·大田日報·忠清日報가 해당되고 一道紙에 속한다고 할 것에는 京仁日報·江原日報·濟州新聞 3個가 여기에 該當된다.

그런데 現在 制度上의 配布(販賣)許用범위로 보아서는 블록지에 해당된다 할 것도 1981년

2) 註에 記錄된 것 이외에도 本稿作成에 間接적으로 참고가 된 文獻들은 本稿의 맨 끝에 열거하였다.

3) 崔永定, 「地域紙論」, 『新聞研究』, 寬勳클럽, 1978, 봄, p. 122.

4) 위의 글.

5) 崔鎮宇, 「韓國 地方新聞에 관한 研究」, 政經論集, 8·9合集, 中央大學校 政經大學, 1973, pp. 69-90.

統·廢合이후 사실상 1道 1紙制가 確立되어 地域紙개념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本稿에서 주로 논하고자 하는 것은 中央紙 또는 全國紙를 제외한 全地方紙를 말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地域紙나 地方紙라는 용어상의 구분은 하지 않기로 한다. 즉 여기서는 단지 中央紙(central paper) 또는 全國紙(national paper)에 대조되는 地方紙(local paper)를 통틀어 문제삼고자 한다.

(2) 韓國 地方紙의 略史

地方紙의 嚆矢로는 1909년 慶南晉州에서 發行된 「慶南日報」가 꼽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참다운 의미의 地方紙가 생긴 것은 解放後의 일이다. 8.15解放後 全國的으로 맨먼저 새로 創刊된 新聞을 가진 곳은 서울이 아니고 湖南의 全州이었다.⁶⁾ 즉 1945년 8월 17일 타블로이드版의 片面新聞인 「建國時報」가 解放後 最初의 國文版新聞으로 全州에서 나왔다.⁷⁾ 同 8월 31일에는 光州에서 「全南新報」(뒤에 「湖南新聞」), 9월 1일 釜山에서는 「民主衆報」(뒤에 「民主新報」) 뒤이어 大邱에서는 「大邱時報」(뒤에 없어짐), 濟州에서는 「濟州新聞」(뒤에 「濟州新報」), 大田에서는 「東邦新聞」(6.25때 소실 없어짐), 淸州에서는 「國民日報」(뒤에 「忠淸日報」), 春川에서는 「江原日報」등이 創刊되었다.⁸⁾

그리하여 大韓民國 政府樹立 前後期 地方紙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⁹⁾

| (地域) | (政府樹立前後) | (1956년 殘存狀況) |
|------|---------------|---------------------|
| 仁川 | 「仁川新聞」(李根世) | } -----> 6.25시 파괴소멸 |
| | 「大衆日報」(崔根澈) | |
| 淸州 | 「國民日報」(金元根) | -----> 忠北新報 |
| 大田 | 「東邦新聞」(郭喆洙) | } -----> 6.25시 燒失 |
| | 「忠南每日新聞」(權正燮) | |
| 大邱 | 「大邱時報」(張仁煥) | |
| | 「民聲日報」 | |
| | 「嶺南日報」(韓應烈) | -----> 嶺南日報 |
| | 「南鮮經濟新聞」(李慶容) | |
| | 「合同新聞」(李雨栢) | |
| 釜山 | 「大邱公報」(吳在東) | |
| | 「自由民報」(金光守) | -----> 自由民報 |
| | 「每日新報」(鄭德賢) | |
| | 「釜山新聞」(金億祚) | |
| | 「大衆新聞」(張壽鳳) | |
| | 「產業新聞」(李容熙) | -----> 國際新報 |

6) 1977韓國新聞年鑑, 韓國新聞研究所, p.52.

7) 위의 책, 이 新聞은 全羅民報, 全州新報등으로 改題되면서 6.25수복 후 기존 全北新聞·全州新報와 統合 全北日報가 되었다.

8) 위의 책, 尙간후 變動狀況은 필자가 조사하여 써넣었음.

9) 崔竣, 『韓國新聞史』, 一潮閣, 1980. pp.374-375. 화살표 뒷 부분은 1956년경까지 이 신문들이 어떻게 되었나를 筆者가 조사하여 써 넣은 것임.

| | | | |
|----|-------------|----------|-----------------------|
| | 「民主衆報」(朴章基) | —————→ | 民主新報 |
| | 「釜山日報」(朴洙衡) | —————→ | 釜山日報 |
| | 「港都月報」(李鶴來) | | |
| 晉州 | 「大同日報」(朴明來) | | |
| | 「慶南日報」(金千洙) | —————→ | 慶南日報 |
| 全州 | 「全北新聞」(宋洙斌) | } —————→ | 6.25수복후 全羅新報와 통합 全北日報 |
| | 「全州新報」(印昌燮) | | |
| | 「全州日報」(鄭邦鉉) | | |
| 群山 | 「群山民報」(陸福述) | | |
| | 「群山日報」 | —————→ | 三南日報 |
| 光州 | 「湖南新聞」(崔泳旭) | —————→ | 湖南新聞 |
| | 「東光新聞」(高光表) | | |
| | 「光州新報」(孫守兼) | —————→ | 光州新報 |
| 麗水 | 「麗水日報」(趙鍾弘) | —————→ | 麗水日報 |
| 春川 | 「江原日報」(南宮海) | —————→ | 江原日報 |
| 濟州 | 「濟州新報」(全錫祐) | —————→ | 濟州新報 |

한편 6.25動亂期 그리고 自由黨期에 들어 初創期 위의 신문들은 많이 사라지고 화살표 다음에 표시한 형태로 남은 이외에 1956년경 존재하였던 地方紙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었다.¹⁰⁾ 仁川新報(1950), 京仁日報(1951), 京畿新聞(1955), 大田日報(1950), 中都日報, 大邱日報(1953), 大邱每日新聞(1950), 時事新報, 群山新聞(1947), 全南日報(1950), 江陵日報, 馬山日報. 이리하여 6.25동란을 겪은 이후 많은 신문이 소멸되고 다시 생겨 1956년경 총 26개 지방지가 발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4.19전후를 걸쳐 1962년경에는 京畿道에 聯合新聞, 京畿每日, 江源道에 江原日報, 忠北에 忠清日報, 忠南에 大田日報, 中都日報, 全北에 全北日報, 全北每日, 湖南日報, 全南에 全南每日, 全南日報, 湖南每日, 慶北에 大邱經濟, 大邱日報, 每日新聞, 嶺東日報, 釜山에 國際新聞, 釜山日報, 慶南에 慶南每日, 慶南日報, 濟州에 濟州新聞으로 21個紙가 있었다. 1963년 5.16革命後 共和黨 政府의 言論 第一次整備期間에도 地方紙는 비교적 安定勢에 있었고 여기서 1966년에 京畿道에 京畿新聞이 創刊되어 1972년 이후 2次整備期 직전까지 22개 지가 존재하였다. 1972년 이후 자율정비조치로 京畿道の 3社는 統合하여 京畿新聞(1973)이 되었고 大田日報와 中都日報 2社가 統合하여 大田日報(1973)가 되었으며 全北의 3社는 全北新聞(1973)으로 全南의 3社는 湖南每日의 廢刊으로 全南每日, 全南日報 2社로 慶北에서는 每日新聞, 嶺南日報 2個紙가 남고 나머지는 폐간되었다. 이리하여 1973년 이후 1981년 言論統廢合이 되기 직전까지 14個 地方紙가 존재하였다. 그러다가 1981년 이후 現在와 같이 釜山日報, 京仁日報, 江原日報, 忠清日報, 大田日報, 全北新聞, 光州日報, 大邱每日新聞, 慶南新聞, 濟州新聞의 10個紙가 되어 發行所의 所在地로 보면 1道 1紙의 오늘의 樣相이 定

10) 大韓新聞年鑑編纂委員會編, 大韓新聞年鑑, 1956, p.201이하 “全國日刊新聞의 現況”에 의하여 作成.

立된 셈이다.

3. 問題의 敘述

本稿의 本論은 地方紙와 讀者와의 關係를 살펴보려 하는 것이지만 地方紙의 讀者背景은 新聞의 販賣收入과 直結되고 또한 제한된 到達範圍는 결국 廣告誘致의 장애요인이 되므로 讀者問題는 紙面制作上의 問題는 물론 新聞의 經營上의 問題에 직결된다고 하겠다. 오늘날 地方紙의 特質을 가장 간단히 요약하여 볼 때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經營上으로 財政難, 紙面上으로 취급범위의 제한성과 그에 따른 紙面性格의 曖昧性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문제들도 대개는 이와 관련된다.

오늘날 韓國地方紙의 特質上의 問題를 外的 環境的 要因과 內的 自體的 要因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먼저 外的 環境的 問題點으로는

(1) 中央紙와의 경쟁적 要因에서

政治·經濟·文化의 諸 部分에서 우리나라는 古來로 中央集權의인 社會體制로 一貫하여 왔다. 그에 따라 言論이 서울 中心으로 發達하였으며 新聞協會의 카르텔제도 까지도 中央紙 中心的의 性向을 띠고 있다. 즉 中央紙는 이른바 全國紙로서 取材·販賣에 있어 全國을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地方紙는 自道 내지는 兩道, 기껏해야 卽屬을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新聞의 取材 및 報道源 廣告源 讀者確保면의 제약은 곧바로 經營과 紙面競爭의 劣勢로 直結된다. 게다가 地方의 大部分의 讀者들은 이러한 中央集中的 社會風土에 젖어 있기 때문에 新聞의 구독성향에 있어서도 中央紙 優先的 思考를 갖게 된다. 地域社會 주민들도 地域社會에서 發行되는 新聞보다 거리상으로 떨어진 서울에서 發行되는 中央紙를 매우 친근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要因의 또 하나는 좁은 國土속에서 交通과 通信의 發達로 全國이 一日生活圈化 되었으니 事實上 國民의 觀念上의 거리는 地方이다 中央이다가 별로 구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2) 異種媒體와의 경쟁적 要因에서

이러한 競爭的 要因의 두번째 樣相으로는 라디오·TV등 電派媒體의 發達로 생기는 異媒體間 경쟁을 들 수 있다. 라디오·TV등 電派媒體와 新聞과의 媒體間的 競爭요인은 다시 速報競爭 및 프로그램(內容)에 의한 受容者 획득의 두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 현재 급속히 보급되어 있는 地方의 라디오와 TV는 地方民의 지배적인 뉴스원이 되고 있다. 地方住民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읽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고 뉴스의 大部分은 라디오와 TV의 뉴스시장을 통해 접촉하게 되어 不足한 부분은 1個정도의 中央日刊紙에 의하여 보충한다. 新聞끼리의 뉴스內容이 비슷하다는 不平等이 있듯이 新聞과 電派媒體와의 뉴스 또한 비슷한 것이고 이러한 비슷한 內容의 뉴스를 접하기 위해 支拂해야 하는 구독료는 상당히 비싸다. 中央日刊紙 1個의 月購讀料 TV시청료를 포함하면 文化뉴우

스 消費費用이 크다고 생각되는 地方民에게, “비슷한 내용의 뉴스를 얻기 위하여” 또 다른 媒體料를 낸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담이 된다.

(3) 廣告確保의 어려움

廣告確保의 어려움이라는 여건 역시 地方紙 內部的 여건이라기 보다 社會環境의 與件에 돌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政治制度와 마찬가지로 經濟生活圈 역시 中央集中化되어 대부분의 企業들이 서울에 遍中되어 있다. 물론 工業施設의 地方分散政策으로 많은 工團과 工場이 地方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럴 경우도 대부분 本社는 서울에 있으며 따라서 서울 中心의 마케팅이 이루어지니 결국 廣告도 서울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全國에 配布되는 支配의인 몇개 日刊紙에 廣告하면 地方紙의 廣告面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廣告는 잘되게 되어 있다. 이로써 그렇지 않아도 新聞을 기피하고 TV등에 集中的으로 廣告하려는 性向을 가진 廣告主들이 新聞을 利用한다 하여도 中央紙를 선택하는 性向이 있어 廣告物量의 確保라는 면에서도 地方紙는 二重苦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根源의인 問題 또는 外部的 與件과 매우 관계 깊은 것이지만 內部的 問題를 다시 몇가지 갈래에서 지적할 수 있다.

(4) 經營 合理化의 문제

一律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地方紙는 대체로 赤字經營(難)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위의 여러 지적에서 나타난 바다. 新聞을 내기 위해서는 新聞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일단 新聞社를 꾸미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건물 기계설비 등 시설과 기본인력 그리고 신문발행원가와 경상비의 支出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一定한 水準以上の 販路(販賣部數)가 確保되지 않고는 아예 신문을 낸다는 자체가 赤字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대체로 地方社는 市場의 크기(地域)와 구독층으로 보아 기본적인 採算性이 不足한 狀況하에서 發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다가 均식구가 많아 人件費부담이 과중한 것이 經營합리화의 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¹¹⁾ 그러면서도 新聞製作의 필수要員으로 實力 있는 記者(社員)에 대해 充分한 대우를 못하고 있으므로¹²⁾¹³⁾ 매년 스카우트 當하는 苦惱를 안고 있으며¹⁴⁾, 낮은 處遇에 따른 新入社員 確保의 어려움¹⁵⁾을 아울러 겪고 있어 결국 經營자본이나 取材현지의 인적구성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基동력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¹⁶⁾

(5) 編輯企劃上的 曖昧性

이것도 어떻게 보면 地方紙가 안고 있는 與件上的 問題의 산물이다. 즉 앞에서 中央紙와

11) 金銀植, 「못다 푼 地方紙의 과제」, 『新聞과 放送』, 1981, 12. p. 21.

12) 申致洙, 「80년대의 地方新聞의 進路」, 『신문과 放送』, 1980. 4., p. 62.

13) 梁承哲, 「지방지 편집의 특성」, 『프레스』 1976. 3편 p. 45.

14) 金泰鉉, 「中央集權下的 지방지」, 『新聞研究』, 1978. 봄. p. 139.

15) 吳光哲, 「首都圈에 吸收——地方色 잃어」, 『新聞研究』, 1978. 봄. p. 136.

16) 崔昇鎬, 「모방일변의 기획을 벗어나」, 『新聞과 放送』, 1979. 1. (No. 98), p. 27.

他媒體와의 取材競爭(取材記事競爭=紙面競爭)에서 社會與件과 주어진 制度라는 二重의 不利點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그에 따라 地方紙는 紙面性格上的 問題로 고민하고 있다. 즉 地方紙는 中央紙를 따르자니 競爭이 안되고 地方의 特色있는 記事만을 내서 순수 로컬화를 지향하자니 記事源의 限界性이 있고¹⁷⁾, 地域自體의 特性이 약하며¹⁸⁾, 中央을 위주로 하는 讀者들의 隋性¹⁹⁾ 등이 장애가 된다. 그리하여 지역의 特色을 살리면서 中央뉴스를 커버해야 하는 二重의 使命과 製作上的 이율배반성이 地方紙의 共通의 고민이 되고 있다.²⁰⁾ 그리하여 대개의 지방기사 40%, 중앙기사 60% 수용으로, 인식조사 결과 지방기사가 게재는 43~65%까지, 지방을 위한 社說은 주1회에서 3회정도, 그리고 地域的으로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방기사가 많이 게재된다고 한다.²¹⁾ 그러나 地方紙는 전적으로 지방기사 中心으로 特性化 편집을 해야 한다²²⁾거나 심지어는 全國紙를 포함시켜 기사와 신문을 機能的으로 專門化해야 한다는 主張도²³⁾ 있는 형편이다. 한편으로는 特性도 별로 없는 地方을 特性化 한다는 것이 現實的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中央記事를 中央紙 전매특허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적절히 양다리를 걸쳐서 中央紙 讀者도 안 빼앗기고 地方紙 구실도 해야 된다는 엉거주춤한 자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編輯哲學이나 經營方計에 의해 의도적으로 취해진 자세라기 보다는 客觀的 現實이 規定하여 준 바를 受容하고 있는 樣相으로서 그러하다고 하겠다. 韓國의 地方紙가 참다운 地方紙로서 特殊化編輯을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면 現在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의해 그럴 듯하게 제안되고 있지만 實際地方紙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결과에 대해 선뜻 自信할 수 없는 듯하다. 地方紙의 編輯 책임자들은 이러한 不確定狀態에서 苦心하고 있는 것이며 여건의 중속변인이 될 뿐 능동적인 노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글들에서 地方紙의 特性化 또는 地方化(localize)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特性化의 어려움을 지적하여 보고자 한다. 地方紙 特性化의 어려움은 地方紙의 능력과 讀者의 觀念이 兩面 어느 곳에 대하여도 새로운 實驗性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新聞은 이래야 하고 新聞의 뉴스는 이래야 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진 독자에게 뉴스가치의 기준이 전혀 다르게 새로이 개발된 完全 地方化된 記事가 먹혀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現在의 能力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外信이나 通信記事, 中央紙를 轉載하기도 바쁜 판국에 일일이 研究開發·取材作成된 새로운 記事들로 매일 지면을 장식할 記事生産能力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다. 記事의 生産能力이

17) 金銀植, 「못다 풀 地方紙의 課題」, 『新聞과 放送』, 1981.12. (No. 132), p.21.

18) 吳光哲, 앞의 글, p.136.

19) 朴光淳, 「지역사회신문으로서의 個性회복」, 『新聞研究』, 1977, 봄, p.105.

20) 편집부, 「지방밀착에 안간힘 쓰는 14개 地方紙 편집방향」, 『新聞과 放送』, 1978.12. (No.97), p.16.

21) 위의 글.

22) 南宮哲, 「고결적 中央爲主를 시정토록」, 『新聞과 放送』, 1979.1. (No.98), p.33.

23) 위의 글.

문제가 이전에 매장량 또한 문제이고 매장량이 적은 것을 「있게」하여 보도하려면 현재의 與件(能力)으로는 실로 空念佛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상으로 지적한 문제들이 實證的인 讀者調査의 結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忠清日報 讀者調査결과를 中心으로 論議코자 한다.²⁴⁾

II. 本 論

1. 調査目的 및 方法

(1) 目的

·當初에 이 調査는 한 地方新聞(忠清日報)에 대한 讀者의 의견과 구독성향에 대한 經驗的 資料에서 그 新聞의 讀者 管理上의 問題點을 파악하고 紙面制作과 經營政策에 반영케 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本稿에서는 오늘날 韓國 地方紙가 안고 있는 特徵的 問題點을 實際的인 讀者調査結果를 中心으로 검토하여 본 한 事例로서 報告하는 것이다. 이 調査에는 淸州大學校 新聞放送學科 교수진(學科長: 朴正圭교수, 吳斗凡, 朴許植교수)이 공동참여 하였으며 學生들이 調査에 任하였다. 本 調査의 設計 및 提案·實施는 研究者측인 本 學科의 能動的 의사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調査의 客觀性은 보장되었고 新聞社의 主觀的 立場은 배제되었다.

(2) 質問紙作成

質問內容은 忠清日報에 대한 讀者의 전반적 이미지, 紙面(記事)의 內容과 논조 등에 대한 의견, 제작에 대한 의견과 희망사항 그리고 讀者의 사회인구학적 속성에 따른 구독형태 등을 묻는 總 29문항 58個 항목에 걸쳐 작성되었다. 質問紙의 內容은 1년전 서울大 新聞研究所에서 실시한 大邱每日新聞讀者調査質問紙를 많이 참조하였다.

(3) 應答形式

응답형식은 주로 擇一型, 多衆選擇型(multiple choice), 等位型을 주로 하고 自由應答式 設問(open-end question)을 부분적으로 포함시켜 해석에 참조하였다.

調査對象者의 標集은 淸州市와 淸原郡의 定期購讀者 名簿에서 體系的 確率標集(systematic probability sampling) 방식에 따라 매 10번째 讀者를 골라 標本으로 하였으며 10번째 讀者가 조사불능일 경우 바로 다음(명단상의) 독자로 채우는 方式을 사용하였다.

(4) 調査實施

실제 調査는 1981년 11월 14일부터 25일 사이 社會調査方法論 1學期 이상을 이수하고 특별히 本調査를 위하여 훈련된 淸州大學校 新聞放送學科 2·3學年 學生들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調査方式은 面接員이 購讀者를 家庭 또는 職場으로 호별방문하여 質問紙를 통한 직접인터

24) 調査分析의 결과는 1981.3.1일자 同新聞에 特輯記事로 보고된 바 있으며 따라서 여기 보고된 내용은 그 記事에서 보고된 것과 重複되는 것이 있음을 밝혀 둔다.

뷰에 의해 面接員이 즉석에서 기입하거나 本人에게 주어 즉석에서 記錄하게 하는 方式을 사용하였다. 이는 個人面接法에 지극히 가깝게 自答質問紙法을 활용한 例가 되겠으며 完全한 회수율과 質問 應答의 正確性 등의 장점을 갖는다.

(5) 分析過程

처음 豫定된 611個 標本中 회수된 것은 597個 였으며 이중 코딩과정에서 應答의 不實 등으로 5個가 제외되어 최종분석된 것은 593個였다. 593名의 忠清日報 讀者의 의견을 프라임 컴퓨터 400/500시스템(prime computer 400/500 system)으로 分析하였다.

2. 調查結果

(1) 應答者概況

(性別) 調査에 임한 應答者 593名의 性別區分을 보면 남자는 418名(70.5%) 여자는 125名(29.5%)이었다.

(연령) 연령별로는 20代가 193(32.6%), 30代가 183(30.3%), 40代가 149(25.1%), 50代가 57(9.6%), 60代 이상이 10(1.7%)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 應答者의 學歷은 無學이나 書堂교육 國校를 졸업한 사람이 4%, 中卒이 11.8%, 高卒이 49.6%, 大卒이 32.4%,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1.9%이다. 피조사자의 83.9%가 高卒이상 大學教育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本 設問에서는 精讀者의 學歷을 묻지는 않은 대신 應答者의 學歷을 물었던 바 83.9%가 高卒이상의 學歷者라는 것이 보이고 應答者의 58.9%가 購讀者로 本人이라고 應答한 것으로 보아 精主讀者의 태반은 高卒以上の 學歷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정도) 應答者의 생활정도는 78.4%가 보통, 10%가 비교적 잘 살거나 아주 잘 산다고, 11%가 좀 못사는 편이거나 아주 못사는 편이라고 應答하고 있다.

(직업) 직업별로는 商工·서어비스業(상인, 소매점주인, 종업원 30미만의 社長)이 28.3%로 가장 많고, 사무계 종사자가 26.5%이다. 즉 讀者의 절반이상(54.8%)이 商人·中小企業者·사무계종사자라는 것이고 나머지 직업으로는 서어비스업, 자유업이 從多數(각각 7.9%) 기타가 기술, 관리, 농업 종사자로 5% 미만이고 그외는 주부 및 대학생이었다.

(거주지역) 거주지역별로는 491名이 淸州市地域, 102名이 淸原郡地域(신탄진 포함) 거주자였다.

이상의 應答者 性別·연령·학력·생활정도·직업등 사회인구학적 속성과 신문구독에 따른 53개 變因에 대한 應答성향과의 交叉分析(Cross-tabulation)을 전체 應答者에 대한 頻度分析(Frequencies)과 함께 병행하였다.

(2) 結果分析

1) 精讀者概況

清州市·清原郡 地域 定期購讀者中에서 體系的無選標集하여 얻은 593名에 대한 新聞購讀과 관계된 기본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定期購讀年數) 먼저 이 地方紙 讀者의 定期購讀年數別 統計는 <표 1>과 같았거니와 他 新聞의 경우(例 中央紙)와 비교기준이 問題였지만 우선 5년이상 定期購讀者層이 얇음(27.7%)을 직감할 수 있다.

<표 1> 定期購讀年數

| 정기구독年數 | 頻 度 | % | 누가 % |
|--------|------|------|-------|
| 1년이하 | 159名 | 26.8 | 27.0 |
| 1~4년 | 269 | 45.4 | 72.3 |
| 5~10년 | 121 | 20.4 | 92.7 |
| 11년이상 | 42 | 7.3 | 100.0 |

(讀者의 性別) 愛讀者의 남녀별 분포는 512:80으로서 86.5%가 남자 13.5%만이 여자였다. 이는 인구비례로 보아 남성독자일변도의 신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역시 中央紙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 일어졌으나 우선 여성독자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도 地方紙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다른 문항의 응답에서 生活情報, 生活記事, 社會記事, 教育에 관한 기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지배적으로 보아 地方紙에서 女性讀者開發의 여지와 가능성이 엿보이는 戰略的 人口層임을 지적하고 싶다.

(精讀者의 연령) 精讀者의 연령별로 보면 <표 2>에서 보이거니와 30세이상의 연령층 독자가 78.8%이며 21.2%만이 29세 미만의 독자였고 19세이하의 靑少年讀者는 1%에 머물렀다.

<표 2> 精讀者 연령분포

| 연 령 | 빈 도 | % | 누가 % |
|--------|-----|------|-------|
| 19세이하 | 6名 | 1.0 | 1.0 |
| 20~29세 | 120 | 20.2 | 21.2 |
| 30~39세 | 205 | 34.6 | 55.8 |
| 40~49세 | 174 | 25.2 | 85.2 |
| 50~59세 | 73 | 12.3 | 97.5 |
| 60세이상 | 15 | 2.5 | 100.0 |

연령층으로 보아 30代가 34.6%로 主年齡層을 이루고 20代와 40代가 各 20%~25%를 차지하여 讀者의 연령별 분포는 35세를 中心으로 定規分布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讀者層의 개발이라는 立場에서 보면 10代 靑少年과 50~60代 中老년층이 독자개발 전략연령층이 될 것이다. 靑少年이나 老人讀者層의 증가는 中壯年 독자층을 밀어올려 전체 독자층을 두 텁게 하는 효과에 기여할 것이다.

3) 購讀理由

讀者의 이 新聞 購讀의 주된 이유를 等位型으로 응답케 한 결과 '내고장 소식이 많이 실

리기 때문' (74.5%), '우리 고향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라서' (51.1%), '지역문화발전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 (59.5%)이 순서대로 꼽히고 있다.

地方紙 讀者의 주된 購讀動機는 "내고장에서 발행되는, 내고장 소식을 많이 실는, 지역 문화발전에 노력하는 신문"이라는 愛鄉動機·地域動機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一般的으로 오늘날 地方紙의 이러한 動機는 地方紙의 使命과 指向點을 분명히 해준다고 하겠다. 地域新聞(local paper)으로서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살리고 그로써 본분을 다하는 것이 일단 讀者가 생각하는 地方紙의 役割觀임을 알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 新聞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소식을 실는 新聞이라는 動機보다 네번째 동기로 지적된 "실생활에 中央紙보다 더 도움이 돼서"라는 실용적 동기가 주된 동기로 추가되도록 지면정책에의 반영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 먼저 읽는 記事

이 新聞의 紙面中 가장 먼저 읽히는 기사를 역시 等位選擇케 한 결과 ① 政治(32.0%), ② 社會(21.5%), ③ 地方消息(18.9%)이 꼽히었다. <표 3> 즉 讀者에게 가장 관심과 흥미를 주는 기사란은 政治·社會, 地方消息의 順이라 하겠으며 이 問項의 응답은 政治 및 事件記事(典型的인 中央記事) 中心의 讀者의 既存 思考方式의 반영이라 생각되며 ③ 번째로 地方消息을 열거한 것을 보면 地方讀者는 地方紙에서 中央紙의 機能과 兼備되는 것을 요구하는 性向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類型別 選好記事

| 기 사 | 번호 | 제 일 번 지 | | | 두 번 제 로 | | | 세 번 제 로 | | | 중 | | | 첩 | | | |
|-------|-------|---------|------|----|---------|------|----|---------|------|----|------|------|----|----|---|----|--|
| | | 빈도 | % | 등위 | 빈도 | % | 등위 | 빈도 | % | 등위 | 빈도 | % | 등위 | 빈도 | % | 등위 | |
| 1. 정 | 치 | 190 | 32.0 | 1 | 57 | 9.6 | 4 | 41 | 6.9 | 6 | 288 | 16.2 | 3 | | | | |
| 2. 경 | 제 | 40 | 6.7 | 4 | 99 | 16.7 | 3 | 54 | 9.1 | 4 | 193 | 10.9 | 4 | | | | |
| 3. 학 | 술 | 9 | 1.5 | 8 | 15 | 2.2 | 12 | 23 | 3.9 | 11 | 47 | 2.6 | 11 | | | | |
| 4. 예 | 술 | 8 | 1.3 | 10 | 21 | 3.5 | 7 | 21 | 3.5 | 12 | 50 | 2.8 | 10 | | | | |
| 5. 가 | 정 | 9 | 1.5 | 8 | 19 | 3.2 | 10 | 27 | 4.6 | 10 | 55 | 3.1 | 9 | | | | |
| 6. 사 | 회 | 134 | 22.6 | 2 | 130 | 21.9 | 1 | 87 | 14.1 | 2 | 351 | 19.8 | 1 | | | | |
| 7. 의 | 신 | 6 | 1.0 | 12 | 16 | 2.7 | 11 | 15 | 2.5 | 13 | 37 | 2.1 | 12 | | | | |
| 8. 소 | 설 | 10 | 1.7 | 7 | 20 | 3.4 | 9 | 28 | 4.7 | 9 | 58 | 3.3 | 8 | | | | |
| 9. 스 | 포 | 35 | 5.5 | 5 | 56 | 9.4 | 5 | 57 | 9.6 | 3 | 148 | 8.3 | 5 | | | | |
| 10. 연 | 에·오 | 17 | 2.9 | 6 | 23 | 3.5 | 6 | 51 | 8.6 | 5 | 91 | 5.1 | 6 | | | | |
| 11. 관 | 광안내휴양 | 0 | 0 | 15 | 2 | 0.3 | 14 | 6 | 1.0 | 15 | 8 | 0.5 | 15 | | | | |
| 12. 지 | 방 소 | 125 | 21.1 | 3 | 105 | 7.7 | 2 | 112 | 18.5 | 1 | 342 | 19.3 | 2 | | | | |
| 13. 광 | 고 | 8 | 1.3 | 10 | 21 | 3.5 | 7 | 33 | 5.6 | 7 | 62 | 3.5 | 7 | | | | |
| 14. 기 | 타 | 1 | 0.2 | 13 | 3 | 0.5 | 13 | 31 | 5.2 | 8 | 35 | 2.0 | 13 | | | | |
| 15. 무 | 응 | 1 | 0.2 | 13 | 2 | 0.2 | 15 | 7 | 1.2 | 14 | 10 | 0.6 | 14 | | | | |
| | | 593 | 100 | | 589 | 100 | | 593 | 100 | | 1775 | 100 | | | | | |

5) 重點的으로 다룰 記事

더 중점적으로 다룰 기사 4個를 무순으로 추출하여 중점응답분석법(multiple response analysis)으로 처리한 結果는 <표 4>와 같다. 이중 가장 두드러지게 지적된 4種의 기사는 ① 生活情報 ② 生活記事 ③ 社會記事 ④ 教育이었으나 ⑤ 經濟 ⑥ 스포츠 ⑦ 보건위생기사 ⑧ 레저·오락 ⑨ 가정기사에 대한 興望도 잠재되어 있음을 본다. 그러나 ① 젊은이 대학가 ② 학술 ③ 예술 ④ 어린이 기사에 대한 興望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記事에 대한 희망과 성별을 交叉시켜 분석하여 보면 여성독자는 ① 家庭난과 ② 藝術난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⑬ 보건위생도 여성독자층이 많이 희망하는 기사로 보여진다. 남성독자는 ⑥ 經濟記事 ⑦ 스포츠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 性別에 따른 記事希望度(multiple response)

| 희망기사 | 성 별 | | | 희망기사 | 성 별 | | |
|----------------|--------|------|-----|-----------------|--------|------|-----|
| | 남 | 녀 | 전체 | | 남 | 녀 | 전체 |
| 1. 가 정 기 사 | f 56 | 55 | 111 | 9. 예 술 | f 46 | 40 | 86 |
| | % 50.5 | 49.5 | 100 | | % 53.5 | 46.5 | 100 |
| 2. 생 활 기 사 | f 168 | 87 | 255 | 10. 스 포 츠 | f 132 | 14 | 146 |
| | % 65.9 | 34.1 | 100 | | % 90.4 | 9.6 | 100 |
| 3. 레 저·오 락 | f 82 | 29 | 111 | 11. 농 촌 소 식 | f 103 | 20 | 123 |
| | % 73.9 | 26.1 | 100 | | % 83.7 | 16.3 | 100 |
| 4. 젊 은 이·대 학 가 | f 63 | 36 | 99 | 12. 생 활 경 보 | f 260 | 125 | 125 |
| | % 63.6 | 36.4 | 100 | | % 67.5 | 32.5 | 100 |
| 5. 경 치 | f 92 | 15 | 107 | 13. 보 건 위 생 기 사 | f 84 | 62 | 62 |
| | % 86.0 | 14.0 | 100 | | % 57.5 | 42.5 | 100 |
| 6. 경 제 | f 146 | 36 | 182 | 14. 어 린 이 기 사 | f 45 | 27 | 27 |
| | % 80.2 | 19.8 | 100 | | % 62.5 | 37.5 | 100 |
| 7. 교 육 | f 126 | 75 | 201 | 15. 사 회 기 사 | f 170 | 48 | 48 |
| | % 62.7 | 37.3 | 100 | | % 78.0 | 22.0 | 100 |
| 8. 학 술 | f 49 | 23 | 72 | 16. 무 응 답·기 타 | f 50 | 8 | 58 |
| | % 68.1 | 31.9 | 100 | | % 86.2 | 13.8 | 100 |

6) 新聞의 性格

忠清日報의 性格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71.5%는 저항적이 아닌 편이라고 보고, 저항적이라는 편은 24.7%에 그쳤다. 아울러 응답자의 70.3%는 보수적인 편이라고 보고 있으며 11.8%은 아주 보수적이라고 보고 27.1%미만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다수의 응답자가 이 신문을 상업주의적이라고 보지 않으나(52.6%) 상업주의적인 편이라고 보는 독자는 상당수(43.6%) 있었다. 이 신문이 얼마나 개방적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32.4% 이하의 사람이 그런 편이라고 하고 64.4% 이상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리한다면 독자들의 이 新聞의 性格에 대한 知覺은 비교적 덜 저항적이며 비교적 보수적이며 상업주의적 性向이 엿보이기는 하나 두드러지지

〈표 5〉 이 地方新聞의 性格(Relative Frequency, %)

(아주 그렇다)(그런 편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합계)

| | | | | | | |
|-------|------|------|------|------|-----|-----|
| 저 항 적 | 2.4 | 22.3 | 54.8 | 16.7 | 3.9 | 100 |
| | 24.7 | | 71.5 | | | |
| 보 수 적 | 11.8 | 58.5 | 24.1 | 3.0 | 2.5 | 100 |
| | 70.3 | | 27.1 | | | |
| 상업주의적 | 4.0 | 39.6 | 44.7 | 7.9 | 3.7 | 100 |
| | 43.6 | | 52.6 | | | |
| 개 방 적 | 4.2 | 28.2 | 51.8 | 12.6 | 3.2 | 100 |
| | 32.4 | | 64.4 | | | |

는 않고 개방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다.

6) 新聞에 對한 信賴感

忠北地方의 관찰보도기사가 이 地方紙와 다른 신문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쪽 기사를 더 믿는가 라는 質問으로 이 地方紙에 대한 讀者의 信賴感을 측정하여 보았다. 이에 대하여 60.2%인 357名의 응답자가 어떤 中央紙보다도 이 地方紙를 더 신뢰하겠다고 응답하였고 31.5%는 中央紙를 더 신뢰하겠다고 응답하였다(무응답 8.3%) 한편 이 地方紙와 다른 地方紙와의 신빙도 비교에 있어서는 절대다수가 어느 지방 지방지보다도 이 地方紙를 더 신뢰하겠다고 응답(85.2%)하였는 바 오직 2%의 사람만이 他 地方紙를 손꼽고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忠北의 관찰기사에 관한 한 어느 中央紙나 地方紙에 비하여도 忠清日報 기사가 단연 월등한 신뢰감을 얻고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中央紙 의존도가 꽤 높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7) 地域紙로서의 노력정도

忠清日報가 地方紙로서 使命과 特色을 살려 地方民의 여망에 부응하는 新聞으로 노력하는 정도를 讀者가 어떻게 評價하는가를 묻는 4個項의 물음에 대하여 응답한 것은 〈표 6〉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은 대체로 신문이 “내고장 消息을 보다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75.9%), “지방민의 뜻을 道政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66%), “지방지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66.5%), “도민들에게 관련이 큰 정부방침을 잘 보도하기 위해 노력한다(61.4%)”고 생각한다. 이 중에 특히 地方뉴스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가장 높게 評價되고 있으며 지방지의 특색을 위한 노력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표 6〉 충청일보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어느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 노력을 거의안함 | 노력을 별로안함 | 그저 그렇다 | 다소 노력함 | 크게 노력함 |
|------------------------------------|-------------|-----------|-------------|-------------|-------------|
| (1) 내고장 소식을 보다 신속히 절단하기 위해 | 14명 2.4% | 30 5.1 | 98 16.5 | 258 43.5 | 192 32.4 |
| | 7.5% | | | 75.9% | |
| (2) 지방민의 뜻을 道政에 반영하기 위해 | 12 2.0 | 51 8.6 | 134 22.6 | 284 47.5 | 110 18.5 |
| | 10.6 | | | 66 | |
| (3) 지방지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 13 2.2 | 52 8.8 | 126 21.2 | 241 40.6 | 157 26.5 |
| | 11 | | | 66.5 | |
| (4) 충북주민들에게 관련이 큰 정부 방침을 잘 보도하기 위해 | 17 2.5 | 50 8.4 | 159 26.8 | 248 41.8 | 116 19.6 |
| | 109 | | | 61.4 | |

8) 他 新聞購讀

讀者의 79.5%는 이 地方紙와 全國紙를 並讀하고 있고 20.1%는 이 地方紙만을 구독하고 있었다. 並讀紙로서 가장 유력하게 꼽힌 것은 A신문(11.1%), B신문(8.5%), C신문(7.9%), D신문(7.7%) 순이고 오직 0.4%만이 타 地方紙를 병독하고 있었다.

他新聞을 구독하는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우리고장 소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전국적인 動向을 잘 요약해 주고 있어서'(63.9%)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政治(8.3), 사회문화면(9.3)기사의 충실도 때문에 타신문을 구독한다는 독자도 있었다.

9) 紙面製作上의 問題

紙面製作上의 問題는 원래 紙面構成上의 테크니크(編輯)에서 오는 것과 印刷技術上의 테크니크(工務)에서 오는 것의 두 갈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本 調査에서 파악한 것은 주로 讀者가 느끼는 紙面에 대한 視覺上의 종합적 인상·可讀性을 조사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것이 위의 前者에서 온 것인지 後者에서 온 것인지는 구별되지 않고 있다. 이 신문의 視覺的 效果에 대해 63.7%가 '지면정리가 잘 돼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고 안정감이 있다'고 대답하고 35.4%가 지면정리가 '시원치 않아 보기가 답답하다'고 대답하였다. 印刷狀態로 보아 69.5%는 인쇄효과가 좋아 지면이 깨끗해 보인다고 대답하고 28.8%는 인쇄가 좋지 않아 우중충하다고 대답하였다. 활자크기에 대한 소감은 85.8%가 불편없이 읽고 있다는 것이며 13.7%는 활자가 너무 작아 읽기에 불편하다고 응답한다. 응답자의 56%는 天然色 지면 제작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反應이고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11.8%에 이르렀으며 32.3%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글專用問題에 대해서는 57.7%가 현재대로 좋다는 것이고 20.2%는 한자를 조금 더 쓰

는 것이 좋다는 것이며 14.6%는 한글로 쓰되 한자를 괄호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며 2.4%만이 한글만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10) 장단점

忠淸日報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을 장점 3個와 단점 3個를 자유로이 記述하게 하여 나타난 應答의 빈도를 세고 應答의 유형성을 몇개의 요인군으로 묶어 정리하는 方式을 썼다. 그 결과 장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① 내고장소식을 전해주는 신문이다. ② 지방뉴스를 신속히 전해준다. ③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④ 地方文化 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으로 정리되어 다른 質問項目에서 객관식으로 묻은 應答경향과 일치한다. 단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가장 빈번한 것은 ① 紙質·인쇄·편집 등 지면의 美麗性和 可讀性的 不足이었던 바 이 지적은 앞의 9번항 분석내용과 상치되나 應答의 能動性을 고려하여 본항의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② 중앙지의 모방·批判性 公正性 결여 등 創意性·評論性문제, ③ 經濟·文化·스포츠·농촌소식·생활정보 등 情報機能의 不足등이 지적되고 있다. 요약하면 장점은 使命感에 충실한 地方紙로서의 特色을 충분히 가졌다는 점이며 단점은 紙面上的의 미려·가독성의 부족, 창의·평론성의 미약, 정보기능의 불충분 등이라 하겠다.

(3) 問題發見과 代案

이와같은 讀者調查의 結果 紙面管理와 讀者管理에 여러가지 문제와 示唆點이 발견되어 經營 및 編輯에 參考될 사항이 提言될 수 있었다. 이러한 提言事項에는 言論制度上的의 문제와 같은 社外的인 문제도 있고, 購讀料·廣告와 같은 經營的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우선 現制度를 전제로 하고 문제되고 있는 것은 紙面管理에 관한 것이다. 現下 地方紙가 가진 命題는 이상적인 地域主義化의 길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것임은 本稿의 序論에서 지적한 바다. 忠淸日報의 경우 이 建實한 地域主義化의 길은 꾸준히 걷고 있는 셈이며 이번 독자조사에서도 이 점이 확인되고 있다.

蛇足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本 事例研究의 對象이 된 忠淸日報의 경우 中央報道記事中 地域社會 관련된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다루는 報道方式을 취하고 있다. 例컨대 中央紙들이 “땅, 주력값 크게 올라” 標題下에 국제청 地價지수의 발표기사를 취급할 때 忠淸日報의 경우 “淸州·大田 땅값 1百倍이상 올라”를 톱으로 삼아 中央記事中 地域社會 해당부분을 뽑아 크게 취급하는 方式을 쓰고 있다. (1982. 10. 20日字 忠淸日報)같은 例로 全國體典 전적보도에 있어 서울의 신문들이 “서울 2연패, 전남 2위, 경남 3위”식으로 報道할때 忠淸日報의 경우 “10倍로 물러 앉은 忠北”이라고 톱을 뽑아 報道하는 것이다. 이 方式은 本 研究의 事例가 되고 있는 忠淸日報에서 開發하여 가고 있는 스타일이다. 淸州의 경우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 中央紙와의 竝讀率이 강하며 忠淸日報도 이를 認定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方式은 竝讀紙이면서 地方主力紙인 忠淸日報와 같은 新聞이 해야 할 또는 할 수 있는 唯一의 묘책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記事원근 스타일은 차후 논의와 연구관

찰의 편의를 위하여 學術的으로 일단 “地域主義的 解釋報道”方式이라고 命名하여 두기로 한다.

III. 論 議

지금까지 地方紙의 問題點을 지적하였으나 韓國의 地方紙는 지금까지 여러번 整備가 되고 統廢合이 되었지만 分明히 存続의 價値가 있으며 누가 뭐라고 해도 그가 가진 公的 使命이 있다. 그 使命이란 그 社是들에 一部 反映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重要한 것은 地域社會 發展의 媒介體가 된다는 것이다. 現下 韓國社會의 시·공간적 조건으로 보아 國家를 한 發展의 단위로 보았을 때 社會諸部面에서 中央集中化의 必要性和 地方分散化의 必要성이 兩立되고 있다고 본다. 中央集中化의 必要性的의 가장 큰 理由는 地域과 人口의 규모로 보아 集中化의 능력이 分散化의 長點을 능가한다는 것이고 또한 解放·前後 30여년의 社會史的 條件이 分散化의 장점을 생각할만한 여지도 없었거니와 國家成立의 歷史的 過程要因으로도 分散化의 필연성을 規定해 놓고 있지도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部面에서 中央으로 中央으로 集中化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모든 部面이란 政治·經濟·社會·文化·宗教·科學·스포츠 등 실로 모든 部面에서 그러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政治的으로는 地方自治問題가 나오면서 首都圈人口의 分散等 정책이 반영하는 바와 같은 分權化의 論理가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分權化의 논리의 臺頭に 便乘하여 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理由로 여러 部面에서 分散主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集權主義의 論理를 能率에 있다면 分散主義의 論理는 地域間的 機能 專門化, 專門화된 機能間의 相互依存에 의한 지역간 均衡적 발전을 피해 보자는 論理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國際間 生産要件의 비교우위에 의한 貿易主義의 論理와 相通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거 地方色이나 地域에고이즘 排他的 孤立主義와는 오히려 反對되는 새로운 地域主義의 개념과 이론의 확립이 필요하다. 朴正圭가 지적하였듯이 地域主義를 (1) 政策主導型 (2) 愛鄉保守型 (3) 未來指向型 (4) 住民權益型으로 나눈다면 地域間的 有機的 分業과 相互依存의 協力에 의한 市民權益型으로 未來指向的 地域主義가 바람직한 模型이 될 수 있다고 본다.²⁵⁾

地域主義의 未來指向性은 新聞의 活動과 紙面에서 어떻게 具體化 될 수 있는가? 社會發展 또는 近代化와 言論과의 涵수관계에 관한 論理는 社會發展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言論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보려는 입장의 하나와, 그 反對로 언론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社會發展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보려는 立場의 다른 하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즉 前者의 立場은 地域社會가 發展하면 言論이 그에 따라 活性化된다는 논리를 取하는 것이라면 後者는 地域社會를 발전하게 하려면 언론이 어찌어찌 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取하는 것이다.

25) 朴正圭, “地域新聞의 役割”, 地方新聞幹部會議세미나, 1982. 10.

언론과 사회발전과의 함수관계에 관하여는 前者의 「…하면 …한다」의 논리와 「…하려면 …하여야 한다」의 논리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後者의 입장은 개발도상국 近代化 模型과 언론의 함수관계를論하는 러너(Daniel Lerner), 파이(Rucyan Pye)와 같은 近代化 論者들의 논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며 이들의 「…하여야 한다」의 논리는 언론에 대한 정책수단의 道具化 理論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²⁶⁾ 그리하여 이제와서 한국의 地方言論이라 하여 地域社會發展을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힘겨운 使命意識만 새삼스럽게 고취한다는 것도 自生的 商業主義의 언론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며 公平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만 한국의 地方言論이 처한 現實的 여건으로 보아 地方新聞 자체의 살길을 찾는다는 微視的 觀點 또는 신문도 경영되어야 한다는 尙業주의원칙에 입각한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의 環境的 要因下에서도 다음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유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다.

즉 먼저 可能한 부분에서 부터 社會機能의 合理的 分散化를 誘導 내지는 主導해 나가고 地域社會의 特色을 살려 지역사회발전의 능동적 선도자가 되어 한다는 것이다. 新聞과 社會發展의 관계에 있어서는 新聞이 능동적으로 行動하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야말로 사회적 여건성숙이 없이는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前者를 軟性的 部門, 後者를 硬性的 部門이라 불러두자. 軟性的 部門은 例컨데 地方文化의 暢達과 教育·예술등의 分散·地方誘致의 노력이다. 硬性的 部門은 例컨데 政治的 地方自治나 經濟的 地方分散의 部門인데 이는 局地的인 努力으로 손쉽게 成就되기 어려운 일에 속할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우선 地方新聞이 自體의 努力으로 行할 수 있는 것은 地方言論中心으로 軟性的 社會部門에서 보다 더 발전의 능동적 매개체가 되어 발달과 地方化를 적극적으로 誘導해 나간다는 行動順序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새로운 개념의 紙面開發과 새로운 개념의 讀者開發이라는 양측면에서 地方化를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紙面開發의 地方化란 中央記事의 창의적 地方화와 함께, 종래의 記事概念으로 보아서는 報道거리가 되지 않을지 모르나 새로운 地域主義의 개념하에서는 훌륭한 報道內容이 될 記事內容과 보도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형성된 독자층에 소구하는 것이 아니라 讀者를 개발해서 보도하는 새로운 新聞개념 또는 뉴우스價値의 變革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독자개발이라는 문제를 提言한다면 대체로 우리나라 독자가 新聞과 읽는 媒體에 대해 權威를 부여하면서도 실은 읽기를 싫어하는 性向이 있는 듯하다. 그 理由는 별로 시원시원한 內容이 없이 記事內容이 같아든가, 읽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유익한 情報內容이 시원치 않다든가 하는 理由등이 있겠으나 讀者의 읽는 習性(읽지 않는 習性)도 문제가 될

26) 李相禧, 「社會變動과 매스 커뮤니케이션—近代化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理論」에 대한 하나의 다른 視覺—」서울대新聞研究所學報, 제 6집, 1969. 12. pp.27-46.

것이다. 讀者의 要求가 있어 新聞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新聞에 의하여 大多數國民의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사고력·토론력을 길러주는 이른바 新聞教育을 地方新聞 스스로가 行해가며 讀者에게 자기 新聞을 읽게 하는 능동적 讀者開發運動이 並行돼야 한다고 본다.

IV. 結 論

本稿는 같은 日刊綜合新聞으로 정의되는 地方紙가 全國紙와 어떻게 다른 樣相에서 발견되고 있는나 하는 實態를 주로 地域社會와 制度的 與件, 讀者와의 關係라는 側面에서 검토하였다. 本稿의 序論과 論議는 주로 地方紙全體의 基本적 양상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文獻研究와 필자의 주관적 觀察에 의해 검토하였고, 本論은 필자 자신이 행한 한 地方紙의 讀者分析의 結果를 事例研究로 제시하였다.

본고의 전체에서 필자는 地方紙가 地域社會의 좁음, 讀者層의 얇음, 競爭的 與件의 불리함 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비하여 地方紙가 갖는 장점이나 보람됨의 側面이 또한 없는 것이 아니며 地方紙의 밝은 측면의 논의는 더 많은 연구분량을 요구하는 점이 있는 것을 잘 안다. 地方紙의 개중에는 與件이 비교적 양호하고 경영이 충실하여 中央紙를 뺀 일부 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대개는 '讀者'라는 要因(量으로든 質로든)을 잘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本抽稿의 전체적 논지에 근원적으로 離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地方紙의 機能은 여러 각도에서 多樣하고 地域住民이 이에 거는 기대와 친근감은 각별한 바가 있다. 學界에서도 같은 新聞의 定義하에서 움직이면서도 상당히 獨特한 특질을 갖는 이 세그먼트(segment)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多角的인 研究가 進行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 地方新聞 經營者 세미나 보고, 「지방지의 실태는?」『신문평론』, 1974.7(No.49), p.87.
 全秉學, 「지방지의 특수성과 현 경영국면의 타개방안」, 『신문평론』, 1974.7(No.49) p.90.
 沈相宇, 「신문기업의 경영구조에 대한 소고」, 『신문평론』, 1974.7(No.49), p.93.
 安世永, 「과다경쟁에서 상호협조자세의 필요성」, 『신문평론』, 1974.7(No.49), p.108.
 편집부(편), 「전국일간지의 광고요금표」, 『신문평론』, 1974.9(No.50), p.63.
 一力一夫, 「신문의 주목적은 판매에 있다」, 『신문평론』, 1974.11(No.51), p.29.
 金銀植, 「영역찾아 개성개발을」, 『신문평론』, 1975.11(No.60), p.17.
 강원일보 창간 30주년 세미나요지, 「지방신문은 고투하고 있다」, 『신문평론』, 1975.11(No.60), p.27.

- 프랭크 로저스, 「영국의 지역신문」, 『신문평론』, 1976.7(No.68), p.56.
- 金明燠·朴遇澶·李幸柱·尹浩憲, 「푸대접만 받는 지방지의 광고」, 『신문평론』, 1976.10(No.71), p.23.
- 李富光, 「지역사회발전과 駐在記者」, 『저널리즘』, 1976, 가을호. p.134.
- 梁承哲, 「지방지·편집의 특성」, 『프레스』, 1976. 제3편, p.45.
- 李德林, 「한국의 地方新聞」, 『프레스』, 1976. 제3편, p.85.
- 金秉學, 「사회변동에의 능동적 적응」, 『신문연구』, 1977. 봄호. p.92.
- 朴光淳, 「지역사회신문으로서의 個性회복」, 『신문연구』, 1977, 봄호. p.105.
- 李治白, 「커뮤니티페이퍼의 추구」, 『신문연구』, 1977. 봄호. p.111.
- 崔啓遠, 「지방도시에도 朝·夕刊 분리돼야」, 『신문과 방송』, 1978.1(No.86), p.89.
- 李相禧, 「산업화속의 지방신문」, 『신문과 방송』, 1978.7(No.92), p.38.
- 南載熙, 「지방신문의 편집에 관한 제3자로서의 의견」, 『신문과 방송』, 1978.7(No.92), p.38.
- 安德煥, 「지방신문의 편집의 체문체」, 『신문과 방송』, 1978.7(No.92), p.39.
- 편집부, 「지방밀착에 안간힘쓰는 14개 지방지의 편집방향」, 『신문과 방송』, 1978.12. (No.97), p.16.
- 李炯基, 「지방신문 '78년」, 『신문과 방송』, 1978.12(No.97), p.56.
- 崔昇鎬, 「모방일변의 기획을 벗어나」, 『신문과 방송』, 1979.1(No.98), p.27.
- 南宮哲, 「고질적 中央爲主를 시정토록」, 『신문과 방송』, 1979.1(No.98), p.33.
- 申玆洙, 「80년대의 지방신문의 진로」, 『신문과 방송』, 1980.4(No.113), p.62.
- 편집부, 「독자투고분석」, 『신문과 방송』, 1980.8(No.117), p.33.
- 李治白, 「지방지고민 二題」, 『신문과 방송』, 1981.11(No.131), p.60.
- 金銀植, 「못다핀 지방지의 과제」, 『신문과 방송』, 1981.12(No.131), p.21.
- 崔 竣, 『韓國新聞史』, 1980.1. p.374-375.
- 한국신문연구소編, 한국신문연감, 1977.
- 한국언론연구원編, 한국신문방송연감, 1981.
- 崔鎮宇, 「韓國地方新聞에 관한 研究」, 『政經論集』, 8·9合集, 中央大 政經大學, 1973. pp.69-90.
- 朴鉉兌, 「地域社會發展과 커뮤니케이션 —오피니언리더研究의 一環으로—」
- 朴正圭, 「地域新聞의 役割」, 地方新聞幹部會議세미나, 1982.10.
- 朴相培, 「우리나라 地方新聞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中央大 社會開發大學院, 1975.
- 崔永定, 「地域紙論」, 『新聞研究』, 1978. 봄, 寬勳클럽, pp.122-132.
- 吳光哲, 「首都圈에 흡수 —地方色 잃어」, 위의 책, pp.133-136.
- 金泰鉉, 「中央集權下의 地方紙」, 위의 책, pp.137-140.
- 金銀植, 「地域讀者의 製作참여 誘導」, 위의 책, pp.141-143.